

홍타이지의 반릭단 滿蒙聯盟 확대와 이용

盧 基 植*

<目 次>

- | | |
|------------------------|----------------------|
| 서 론 | 2. 반릭단 만몽연맹의 체결 |
| I. 만몽연맹 확대의 배경: 몽골의 내분 | III. 반릭단 만몽연맹의 이용 |
| 1. 립단 한의 몽골 통일 시도 | 1. 홍타이지의 맹주권 강화 |
| 2. 몽골 각부의 만몽연맹 제의 | 2. 몽골 대명경제 병합과 확대 시도 |
| II. 반릭단 만몽연맹의 확대 | 맺 음 말 |
| 1. 몽골에 대한 홍타이지의 대응 | |

서 론

征服王朝는 대개 북방민족 내부의 통합, 외부 세계로의 팽창 중 다른 북방민족 또는 漢人王朝와의 대립, 정복과 漢人 지배 등의 정치적 통합과 대외경제의 확대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유목이나 수렵 생활을 하는 북방민족 사회에서는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조직의 변화가 대외경제의 획득·분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대외경제의 변화가 역으로 내부의 정치적인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의 통합된 북방민족이 다른 북방민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북방민족을 대표하는 몽골과 만주의 내부 통합과 분열, 中國 정복과 붕괴 그리고 몽골과 만주 사이의 상호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변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장기간에 걸친 몽골과 만주의 관계를 시기 구분한다면 金代 女眞이 몽골을 지배하던 시기, 元代 몽골이 여진을 지배하던 시기, 明代 몽골과 여진이 분리·병존하던 시기, 清代 만주가 몽골을 지배하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몽골의 쇠퇴와 만주의 흥기가 교차하는 元朝 붕괴 이후 清朝 入關 이

전의 시기는 북방민족의 정치와 대외경제의 상관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16세기말 17세기 초 만주와 몽골 관계의 급격한 逆轉 현상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주의 흥기 과정에서 몽골과의 관계를 추적해 보면 북방민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왜 주변 민족과 분쟁이 발생하고 나아가 통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을 유지하고 지배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入關前 만주와 몽골의 관계에 대해서는 만주가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 결국에는 몽골을 병합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몽골이 일방적으로 만주에게 守勢였던 것만은 아니며, 몽골의 붕괴가 만주의 일방적인 군사적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오해는 입관과 중국 정복이라는 화려한 성공에 가려져 입관 전에 전개된 만주의 성장 과정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가장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滿文老檔』을¹⁾ 검토해보면 그것이 만주측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만주와 몽골의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

만주의 성장과정에서 누르하치 시기와 홍타이지 시기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滿蒙 관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만몽관계에 작용하는 만주와 몽골의 정치 경제 상황과 明朝와의 관계가 그만큼 급박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누르하치는 明을 공격하고 遼東에 진출, 漢人을 지배하는데 몽골과의 聯盟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성공만 거두었을 뿐 결과적으로 전면적인 연맹 형성에는 실패하였다. 반면에 홍타이지는 몽골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요동 지배를 안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본고에서는 후금시기의 만주와 몽골의 관계 중에서 만주의 성공과 몽골의 붕괴를 결정지은 萬里長城 지역 쟁탈전에서 만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만주와 몽골의 反릭단 한(Liqdan Han) 연맹 확대 과정과 홍타이지의 연맹 이용 전략을 분석하려고 한다. 서술의 순서는 먼저 만몽연맹은 립단 한의 몽골 통일 시도라는 내부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몽골의 반릭단 세력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을 밝히려려고 한다. 이어 홍타이지는 오히려

* 祥明大 史學科 講師

1) 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滿文老檔』, 東洋文庫, 1955-63.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몽골과의 연맹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으나 립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반릭단 세력의 투항으로 만주와 몽골이 반릭단 연맹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릭단 명분을 이용하여 몽골연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몽골의 대명경제권을 병합하고 확대하려고 했던 홍타이지의 전략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홍타이지의 군사적 성공에 이은 대청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몽골 병합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시기 만주와 몽골은 북방민족의 정치체제와 대외경제의 상관성, 북방민족 간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부의 정치적 통합과 분열이 대외경제라는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아울러 만주와 몽골 간의 분리·연맹·통합이라는 정치적 관계 변화도 마찬가지로 대외경제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변화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 만몽연맹 확대의 배경: 몽골의 내분

1. 립단 한의 몽골 통일 시도

누르치치가 명과 전쟁을 시작한 이래 만주와 몽골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연합과 대립을 반복하였다. 만주는 1618년 撫順을 공격한 이후 女眞 여허(Yehe)部를 병합하여 통일을 완수하고 遼東으로 진출하여 漢人을 지배하면서 한편으로는 山海關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명과 대치를 계속하였다. 요동의 서북변에 있던 몽골 左翼은 만주의 요동 공격을 대명경제 확대의 기회로 삼아 일시 만주와 연합하여 요동을 공격하기도 하였으나 만주가 요동을 점령하게 되자 몽골은 대명경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몽골의 일부 세력은 명의 撫賞銀 정책을 받아 들여 반만주로 태도를 전환하였고, 일부 세력은 누르치와 反明 연맹을 맺고 요동 공격에 참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몽골 좌익의 각부는 반만주 활동을 주도하게 된 립단 한의 통일 시도라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칼카부는 립단 한의 차하르부에게 병합되었고

코르친부는 만주와 반릭단 연맹을 맺게 되었다. 요동이 만주에게 점령당하고 명과 만주의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립단 한은 만리장성 북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몽골 우익에 대한 통일 전쟁을 개시하였다. 16세기 중엽 몽골 우익 알탄 한의 활약 이후에 서로 분리되었던 좌익과 우익의 정치적 분열을 종식시키고 분리 이전 다만 한이 이루었던 몽골 통일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한 것이었다.

宣府와 大同을 중심으로 한 만리장성 북방 지역은 1547(嘉靖26)년 차하르의 東遷 이후 알탄 한을 비롯한 몽골 우익의 대명 경제 활동 기지였다.²⁾ 1571(隆慶5)년 명과 몽골 사이에 通貢互市가 이루어진 이후 이 지역 몽골의 대명 호시 무역은 점차 확대되어 갔고 반면에 정치체제는 더욱 분열되었다.³⁾ 長城 지역에서 몽골과 명조의 평화적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호시는 더욱 발전하였고, 명조로부터 관직을 받고 市賞의 권리를 획득한 중소 추장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1571년 처음 통공호시가 이루어졌을 때 65명이 관직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관직 수여가 이루어졌다. 특히 正千戶 이하의 하위 관직의 증가가 현저하여 百戶는 隆慶 5년에 비해 萬曆 20년에는 38배, 萬曆 41년에는 76배가 증가하였다.⁴⁾ 이들 몽골의 추장들은 장성 각지의 城堡에서 명조의 무상 은을 수령하였다.⁵⁾

2) 다만한 이후 장성지역 몽고 사회의 변화와 通貢互市에 이르기까지의 對明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曹永年, 『蒙古民族通史』 第3卷, 內蒙古大學出版社, 1991의 「第5章 漢南西部經濟發展, 俺答封貢」이 비교적 종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3) 1571년 명과 몽고의 通貢互市 이후 長城 지역에서 진행된 몽고의 對明 무역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蕭國亮, 『明代後期蒙漢互市及其社會影響』,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1987年 第2期. ; 余同元, 『明後期長城沿線的民族貿易市場』, 『歷史研究』, 1995年 第5期. ; 黃麗生, 『由軍士征掠到城市貿易』, 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研究所, 1995, 제4장 제3절을 참조.

4) 黃麗生, 앞의 책, 251쪽.

5) 薊州 지역에서의 撫賞銀 수령지와 수령자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撫夷하는 장소는 關內에 있는 것으로 滾兔 등에게는 桃林口에서 賞주고, 柴狗 등은 寬佃峪에서 상주고, 他卜能 등은 黑峪關에서 상주고, 長昂 등은 義院口에서 상주고, 伯桑戶 등은 擦崖子에서 상주고, 腦毛大 등은 界嶺口에서 상주고, 綏素 등은 羅文峪에서 상주고, 夷婦 大壁 只 등과 夷酋 毛因 등은 潮河川에서 상주고, 趕兔 등은 大水峪에서 상주고, 伯牙兒啞拜 등은 喜峰口에서 상준다. 이들은 각이는 薊州에서 가깝기 때문에 市賞은 반드시 薊州 지역에서 한다. (『明憲宗實錄』, 卷 77, 天啓 7年 3月 癸酉.) 위 내용은 長城의 동쪽 薊州 지역에서 있던 카라친의 撫賞銀 수령 상황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宣府·

호시는 처음에는 宣府·大同·山西에 설치되었는데 개설 초기부터 교역량이 많았고 계속 증가 추세였다. 이후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몽골 부락들이 시장이 멀다는 이유로 호시의 증설을 요구하여 호시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몽골 각부의 추장들이 참여하는 大市 이외에 일반 部族 成員들이 참여하는 小市도 개설되었다. 小市는 邊境의 墩堡에 매월 개설되어 牛·羊의 가죽이나 馬尾등을 雜糧이나 布綿과 교환하였다. 大市에서도 官市가 종료된 이후 民市가 열려 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교역의 확대와 분산, 민간 무역의 발전은 몽골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전에 몽골의 지도자들은 약탈이나 朝貢貿易 등 대외경제권을 장악하고 그 이익을 屬下의 추장과 일반민에게 분배해 줌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이 각지에 개설되어 明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고, 중소 추장들까지도 대명경제권을 획득하게 되자 각자의 능력에 따라 대외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대외경제의 변화로 인해 몽골 각부의 중소 추장들은 대추장을 통해 대외경제를 획득할 필요가 없어져 정치적으로 대추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성 지역 몽골의 정치체제는 분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릭단 한은 遼東 지역의 몽골 각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통합 시도에 이어 바로 장성지역에서의 막대한 대명 경제 이익과 정치적 분산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였다. 립단 한은 '南朝에는 大明 皇帝 하나만이 있고, 北邊에는 한(汗)인 나 하나뿐인데 어찌 곳곳에서 稱王할 수 있는가? 나는 먼저 안을 처리하고 그 후에 밖을 처리할 것이다'고⁶⁾ 하여 가까이는 다 안 한, 멀리는 칭기스 한의 통일제국 재흥을 꿈꾸고 있었다.

몽골의 통일을 재현하려는 립단 한이 장성 지역으로 이동하였던 데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몽골 각부는 이전에 몽골의 正統 한이 있는 차하르에게 納貢했는데 립단 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납공을 중단하였다. 이 때문에 립단 한은 먼저 카라친을 문책하고 정벌했다.⁷⁾ 납공의 중단이 립단 한이 내세운 카라친 공격의 중요한 이유이지만 출병의 직접적

大同과 河套 지역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6) 『崇禎長篇』卷11, 崇禎 元年 7月 己巳.

7) 談遷, 『國權』(張宗祥 校點, 中華書局, 1958) 天啓 7年 3月 丙申.

인 단서는 대명 관계에서의 충돌이었다. 립단 한은 후금의 요동 진출 이후 宣府·張家口 등지에서 賞을 수령하고 교역하였다. 그러나 喜峰口 지역의 대명 경제권을 갖고 있던 카라친은 喜峰口의 무역권이 립단 한에게 침해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립단 한의 貨物을 약탈하는 등 교역을 방해하였다.⁸⁾ 때문에 립단 한은 카라친을 공격하였고 카라친 공격을 계기로 마침내는 장성 지역 몽골 각부의 무상을 장악하여 몽골의 대외경제권을 통합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립단 한은 몽골의 통일을 목표로 西進하여 먼저 인접한 차하르부의 지파인 나이만·아오한부를 공격하고 이어 카라친부를 공격한 다음 몽골 우익 각부 중 가장 부유했던 알탄 한의 계승자인 順義王의 본거지 歸化城을 점령하였다. 립단 한의 西遷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627년 4월 兵部尙書王之臣의 다음과 같은 上奏에 의해 알려진 것이 처음이다.

虎酋 차하르 王子와 白音 등은 모두 關夷이다. 차하르 추장이 把漢 카라친 일파와 人馬를 다투다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원한은 품었는데 갑자기 병사를 이끌고 카라친의 경계를 압박해 갔다.⁹⁾

王之臣의 上奏는 宣府 巡撫의 보고를 받아서 한 것이므로 립단 한의 카라친 공격은 4월 이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1627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카라친의 몽골인이 명의 변경을 진입하였다가 明軍에게 살해되거나 사로잡힌 일이 있었는데 이때 몽골인들은 대개 침범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순을 맹세하기도 하였다.¹⁰⁾ 이러한 사건들은 립단 한의 카라친 공격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桃林口·喜峰口·宣府로 이동하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립단 한의 카라친 공격은 1627년 2월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 같다.

립단 한은 카라친의 공격에 이어 계속 西進하여 歸化城을 함락했다.¹¹⁾ 당시 歸化城에는 알탄 한의 後孫인 제4대 順義王 보속투(卜石兔)가 있었는데 그는

8) 萩原淳平, 「リクタン・カンの生涯とその時代」, 『明代蒙古史研究』, 同朋舎, 1980, 324-326쪽.

9) 『明熹宗實錄』, 天啓 7年 4月 甲辰.

10) 天啓 7年 3月 甲申 薊遼總督 閻鳴泰의 발언.; 天啓 7年 4月 辛丑 喜峰路參將 馬士麟의 보고.; 天啓 7年 5月 丙寅朔 巡撫宣府御使 陳士文的 상주.

11) 天啓 7年 11月 甲子 巡撫宣府右僉都御使 陳士文의 보고.

順義王 承襲 分爭¹²⁾ 때에 카라친 五路台吉의 협력을 받았던 적이 있었으므로 1627년 7월경 카라친이 립단 한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東進하여 원조하였다.¹³⁾ 립단 한은 이를 歸化城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았다. 립단 한은 歸化城을 점령하고 난 후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카라친을 공격하였다. 립단 한의 서천과 歸化城 점령, 주변에 대한 통일 시도는 대개 1627-28년의 2년 동안에 걸쳐 마무리 되었던 것 같다.

립단 한은 장성 지역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명조에 대해 새로운 무상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627년에 獨石口 등지에서 賞을 요구하기 시작하다가¹⁴⁾ 장성 지역으로의 이동과 몽골 각부 통합이 정리된 162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상을을 요구하여 2월 殺虎堡에서 宣大 總督 王象乾과 撫賞銀에 대해 교섭을 시작하였다. 립단 한은 처음 新賞 40만 兩을 요구하였다가 명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26만 7천 兩으로 減額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도 明側이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1年 1次 8만1천 兩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¹⁵⁾ 다음해 1630년 3월 제2차 교섭에서 립단 한은 투메트와 용시에부에게 주던 市賞을 요구하였다. 처음에 립단 한은 10年分の 市賞을 요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3년분으로 減額하였고 결국에는 1년분으로 타결되었다.¹⁶⁾ 崇禎帝는 몽골의 市賞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상은 액수가 너무 많으므로 이를 지불하는 것보다 립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연간 新賞 8만1천 兩 이외에 宣府·大同·山西의 撫賞銀 8만 6천과 馬價銀 32만 합계 40만 兩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명조는 崇禎 2년과 3년에 여러번에 걸쳐 립단 한에게 撫賞銀을 지

12) 알탄 한 死後 투메트部的 順義王 承襲 분쟁에 대해서는 青木富太郎, 「センゲの順義王承襲について」, 『東方學』 14, 1957. ; 青木富太郎, 「テュルゲの順義王承について」, 『史學雜誌』 66-8, 1957. ; 青木富太郎, 「ボショクトの順義王承について」上·下, 『北アジア民族學論集』 2:3, 1963. 등을 참조.

13) 『國權』天啓 7年 10月 癸丑. 順義王 卜石兔가 上表貢馬하였다. 萬曆 癸丑(1613년)에 襲爵하면서부터 色令台吉과 분쟁하여 누차 무리를 이끌고 脅違하였다. 7月 哈喇慎王의 아들 五路台吉과 차하르가 분쟁하여 威寧海子에 駐屯하였다.

14) 『國權』天啓 7年 12月 辛酉. '이때 插漢 虎墩兔愁이 獨石 塞外 開平所에 주둔하여 賞을 요구했다.'

15) 『崇禎長編』卷19, 崇禎 2年 3月 甲申.

16) 『國權』崇禎 2년 3月.

급하였다.¹⁷⁾

결국 립단 한은 遼東의 舊賞에다 다시 추가로 받기로 한 新賞, 투메트와 음시에부의 무상은까지 합하여 막대한 액수의 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립단의 무상은 장악은 부국강병에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이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효과도 매우 컸다. 장성 지역에서 朝貢과 市賞의 권한을 갖고 있던 각부의 통합을 明으로부터 승인받음으로써 이제까지 정치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몽골 각 세력에 대해 한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¹⁸⁾

歸化城으로 진출한 이후 립단 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명조 측으로서는 北京에까지 침공해 들어오는 후금군과 내부의 農民反亂에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후금도 대명 전쟁과 요동 지배가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모두 립단 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다. 1632년 홍타이지가 정벌했을 때에 립단 한은 이미 歸化城을 떠나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립단 한은 이때까지 고비 사막 이북의 외몽골과 黃河 河原 青海, 시라무네 북쪽 등을 원정하며 몽골 통일 사업을 수행하다가 종교적인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青海지역으로 이동하였다.¹⁹⁾

립단 한은 1627년 歸化城을 함락하고 그 곳으로 이동한 이후 1632년까지 장성 지역의 대명 경제권을 장악하고, 분산되어 있던 몽골의 통합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때 장성 지역에서 대명경제권을 기반으로 정치적으로 분산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몽골 유목조직의 지도자들은 립단 한의 통합 시도에 대해 복속과 저항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몽골의 지도자들 중 일부는

17) 『國權』, 崇禎 2年 3月, 이 달에 插漢 虎墩兔憨이 納款하였다. 潤4月 己未, 插漢 虎墩兔憨이 就款하였다. 3年 正月, 插漢 虎墩兔憨이 10만 騎를 이끌고 宣府에 와서 脅賞하였다. 원래 정한 금액은 40萬金인데 겨우 8만을 모아 주었다. 3月 丁酉, 戶部가 插漢이 修貢했으나 舊賞을 즉시 지급하고, 新賞은 春秋로 나누어 보내어 해당 督撫가 頒行하게 하라고 상주했다. 3年 6月 乙丑, 插漢 虎墩兔憨이 款貢하였다.

18)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研究』, 335-339쪽. 萩原淳平은 립단한의 歸化城 점령에 대해서 정치 경제적 목적과 함께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라마교 신봉자인 립단한은 라마교의 중심지인 歸化城을 함락하고 銀佛寺를 빼앗고, 順義王이 진행하던 간수르 佛經 翻譯 사업을 자신이 완성한 것처럼 발표하여 歸化城 점령을 통해 세속적인 권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라마교의 數權도 장악하여 敎俗 양면에서 몽고의 지배자가 되는데 성공했다고 보았다.

19) 萩原淳平, 위의 책, 339-355쪽.

릭단 한에게 복속하였고, 복속을 거부하는 일부 세력은 明으로 투항하거나 後金과 연맹을 맺고 反릭단 활동을 전개하였다.

2. 몽골 각부의 만몽연맹 제의

자신의 독립적인 정치조직과 배타적인 경제 활동 영역을 갖고 대명관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갖고 있던 장성 주변의 몽골 각부가 립단 한의 정통성을 내세운 통일 시도에 반발하였을 것은 자명하다. 北元의 붕괴 이후 칭기스한의 정통 계승자라는 권위는 이미 추락하여 더 이상 몽골 통일의 명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봉착한 몽골 각부 사이에는 오히려 반릭단을 위한 연합이 형성되었다.

장성지역 몽골의 동요가 립단 한의 통일 시도에 의해서 시작된 것만은 아니었다. 요동에서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던 일부 세력은 누르하치의 요동 진출 직후부터 요동의 분쟁 지역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이때 이미 동요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나이만(Naiman)과 아오한(Aohan) 兩部는 차하르部의 支派로 後金の 遼東 진출 이전에는 後金과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후금의 요동 진출과 함께 이들도 명의 무상은 획득을 위해 廣寧 주변으로 접근해 오면서 후금과의 관계가 시작되어 사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이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1622년 2월 25일 아오한의 두령 버일러의 몽골인이 義州에 들어왔다가 후금 군에게 100 인이 생포되고 400 인이 죽었다. 이후에는 3월 아오한과 나이만의 사자 2 인이 후금에 왔다가 돌아갔다.²⁰⁾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생포된 100 인의 석방을 교섭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어 4월에는 누르하치가 아오한의 두령 버일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 兩國은 一國과 같다. 너희들 몽골국은 明의 都堂의 말에 빠져 援兵을 내보냈다. 원병을 보내면 출병한다고 하고 나는 明을 정벌했다. 하늘이 도와 山海關 이쪽의 廣寧 지방을 나에게 주었다. 그곳의 明의 國人은 모두 머리를 자르고 붉은 문

20) 『滿文老檔』太祖 38, 天命 7年 3月 6日, 561쪽.

촌(菊花頂)을 쓴다. 이럴 때 변경의 漢人이 몽골인이 자기들을 습격하여 데려간다고 보고하여 와서 ‘몽골인들아! 너희들이 정벌하려면 山海關 내의 明人을 정벌해라. 내 속하가 된 國人을 왜 정벌하는가’ 하고 우리 兵이 가서 저항했던 자는 죽이고 저항하지 않은 자는 죽이지 않고 생포하여 100 여인을 석방하여 가게 했다. 그와 같이 하여도 너희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漢人 1 인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래도 되는가? 사람은 서로 공경의 마음을 가지면 싸울 마음을 그만두게 된다. 財寶에 집착하지 않으면 탐욕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나는 관대하려고 생각하여 지금 또 36 인을 놓아 보냈다. 너희들이 데려간 우리 漢人의 노새·나귀를 비롯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돌려보내라.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친선의 道를 얘기 하자.²¹⁾

이 글은 그간의 만주와 몽골 관계를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몽골인들은 먼저 요동 지역의 한인 거주지를 침공하였고 이에 대해 후금군이 반격을 가하였고 누르하치는 이때 생포한 아오한의 포로를 석방하였다. 1622년 6월에도 아오한의 사자가 왔다가 돌아갔는데 이 때 누르하치는 아오한의 두령 버일러에게 금 요대 1 개, 은 그릇 1 개를 보냈고, 추후르 버일러에게는 금 요대 1 개, 은 그릇 1 개를 주었다. 또 왔던 사자 4 인과 중복 7 인에게까지도 각각 은 8 량과 3 량씩을 주었다.²²⁾ 이로 보아 후금의 요동 진출이라는 대혼란을 틈타 몽골은 대외경제 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활동하기 시작하여 후금에 대해 침공과 우호의 양면적인 관계를 시도했으며, 이에 대해 요동 지배를 시도하던 누르하치는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요동지배 안정을 꾀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아오한·나이만의 활동은 후금 측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다가 162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다시 나타났다. 아오한 소속의 몽골인이 10 인은 도보로, 6 인은 말을 타고 娘娘宮이라는 곳에서 15 리 지점에 있는 버려진 村으로 銅錢 등을 주으러 온 것을 哨兵이 발견하여 추적하였다. 이때 생포된 몽골인이 ‘廣寧에는 몽골인도 明人도 살지 않지만 저쪽의 寧遠衛城에는 明人이 살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아²³⁾ 이들도 명조의 무상운을 획득하기 위해 廣寧 주변에 와 있던 몽골인들로서 당장의 궁핍을 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

21) 『滿文老檔』太祖 41, 天命 7年 4月 7日, 596-597쪽.

22) 『滿文老檔』太祖 42, 天命 7年 6月 29日, 619쪽.

23) 『滿文老檔』太祖 61, 天命 9年 1月 21日, 905쪽.

고 후금의 요동 진출로 폐허가 된 漢人의 촌락에 들어와 한인들이 버리고 간 물건을 주우러 왔던 자들이었다. 이 사례는 요동문제로 인한 대외경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몽골인들의 궁핍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대외경제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궁핍 뿐 아니라 립단 한의 통합 시도로 인한 몽골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확대 심화되었다. 1625년 8월 차하르의 잘부·서령 두 타이지가 누르하치에게 叩頭하러 왔다가 돌아갔다. 잘부와 서령은 차하르 투멘 한의 손자 별로 이들은 립단 한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여 코르친으로 도망해 있다가 코르친에서 누르하치를 찾아 왔던 것이다.²⁴⁾ 이로 보아 그 동안 차하르 내부에서는 립단 한이 권력 강화를 시도하면서 유목 지도자들과 충돌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정치체제는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내부의 정치적 통일 시도에 직면하여 이를 모면하는 길은 내부의 반릭단 세력이 연합하여 립단에게 저항하는 한편 외부 세력의 도움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원조 가능성 있는 외부 세력은 명조와 후금이였다. 반릭단 세력이 립단의 공격을 받고 명조에 의존하여 병합을 모면하려고 했던 상황과 이에 대한 명조의 입장을 王之臣은 립단의 카라친 공격 소식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諸虜가 사정이 급하여 邊臣에게 와서 고하였다. 우리 군대가 만일 카라친 추장을 도우면 차하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돕지 않으면 카라친이 원한을 갖게 될 것이다.²⁵⁾

명조는 이처럼 몽골 내부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까지 립단 한이 만주를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립단의 몽골 통일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때문에 명조의 개입으로 립단의 통일 시도를 저지해보려던 몽골 우익의 기도는 성공할 수가 없었다.

반릭단 세력이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후금과의 연합이었다. 만주에 대한 립단의 적대 행위는 이미 누르하치가 요동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동의 적인 립단에 대해서 연합하여 대항하는 일은 실현 가능성이 있

24) 『滿文老檔』太祖 65, 天命 10月 8日, 983쪽

25) 『熹宗實錄』, 天啓 7年 4月 甲辰, 3201쪽.

었다. 몽골 각부는 여러 번 후금에 사자를 파견하여 연맹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1627년 2월 홍타이지는 차하르 나이만의 홍 바투루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나이만의 홍 바투루는 후금과 修好하기 위해 이전에 음자트 초르지 라마를 使者로 파견하였던 적이 있었다.²⁶⁾ 이어 1627년 5월말에 홍타이지가 차하르의 지농 후왕 타이지, 나이만의 홍 바투루, 아오한의 두령, 서천 조릭투 4 버일러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 4명의 버일러들이 이전에 사자를 파견하여 후금의 한 홍타이지와 몽골의 한 립단을 화해시키겠다는 편지를 전달한 적이 있었다.²⁷⁾

립단 한의 몽골 통일 시도가 장성 지역에 있던 카라친과 투메트로 이어지면 서 공격을 받은 카라친과 투메트도 서로 연합하여 립단 한에게 저항하는 한편 후금과의 연합도 모색하기 시작했다. 1628년 2월 카라친의 두령 구영·도노이 군지·노구다라·완단 위이정 등의 버일러·타부낭들이 홍타이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수려 한의 글에 답한다. 차하르 한은 無道하여 一家를 살략한 것을 수려 한과 버일러들은 모두 알 것이다. 차하르의 한은 우리 1萬의 카라친을 蔑視하고 子女·家畜을 빼앗았다. 우리의 한 후왕 타이지는 보속투 한·오르도스 지농과 함께 읍시예부·아스트·아바가·칼카 등과 같이 와서 투메트 거건 한의 조오성에 사는 차하르 4만 of 兵을 죽였다. 우리의 한 후왕 타이지는 10만 兵을 이끌고 왔다. 그 도중에 차하르의 3천 인이 바안 수버에게 賞을 구하러 들어왔지만, 明이 賞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카라친의 한 후왕 타이지가 이를 만나 그들을 모두 죽였다. 지금 左翼 아루의 3 아바가와 칼카의 兵이 출발하려고 하여, 우리를 이끌고 수려 한과 함께 出征하면 어떤가 하고 왔다. 수려 한의 英明으로 이것을 考慮하라. 이 兩者의 글을 보면 차하르의 한은 근본이 혼들려 있으니 이 기회를 틈타 말을 살찌우고 풀이 푸르러질 때 논의 아바가·카라친·투메트와 함께 出兵한다. 너희들도 出兵하겠다면 말을 살찌우라. 甲冑 武器를 정비하라. 너희들이 出兵하지 않겠다면 그것도 너희들 맘대로이다.²⁸⁾

홍타이지가 이전에 어떤 내용의 글은 보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편지에 답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상호간에 이미 사자가 왕래하고 있었던

26) 『滿文老檔』太宗 天聰 1, 天聰 元年 2月 2日, 11-13쪽.

27) 『滿文老檔』太宗 天聰 5, 天聰 元年 2月 2日, 65쪽.

28) 『滿文老檔』太宗 天聰 9, 天聰 2月 1日, 118-119쪽.

것 같다. 이들의 편지는 립단 한의 통일 시도가 카라친과 오르도스·움시에 부·아소트·아바가·칼카 등 장성 지역의 몽골 전체로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몽골 各部의 저항도 거세게 일어났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립단 한의 침공에 대항하여 연합을 형성하고 투메트 거건 한의 조오성에서 차하르 4만의 병력을 격파했고, 또한 명에 무상은을 요구하러 갔던 차하르 병력 3천을 격멸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홍타이지에게 립단의 세력이 자신들의 공격으로 약화된 상태이므로 다시 한번 립단을 공격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때 함께 립단 한을 공격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하고 있다.

카라친의 립단 한 공격은 明의 사료에서도 언급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²⁹⁾ 그것이 립단 한의 장성 지역 몽골 각부의 복속에는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던 것 같다.³⁰⁾ 그리고 그들과 홍타이지의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립단한 공격 계획도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몽골의 연맹 제의에 대한 홍타이지의 신중한 대응으로 연맹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립단 한의 몽골 통일 전쟁은 일단락 되었고 여기에서 패배한 몽골 각부는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II. 반릭단 만몽연맹의 확대

1. 몽골에 대한 홍타이지의 대응

몽골 각부가 적극적으로 반릭단 연맹 형성을 제의해 왔을 때 홍타이지는 신중한 태도로 대응하였다. 누르하치 시기에 이미 몽골과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29) 『崇禎長編』, 崇禎元年 4月 戊午. ‘朵顏36部가 차하르와 旱落兀素에서 싸워 이겼다. 죽이고 획득한 것이 萬으로 헤아렸다.’; 『國權』 崇禎元年 5月 己巳. ‘(朵顏衛) 39家가 伯顏阿亥 등과 함께 차하르 虎墩兔愁과 敖木林에서 싸워 차하르가 패배하여 만여 인이 살상당했다.’

30) 和田清은 투메트 趙城 전투에 대하여 旱落兀素를 歸化城이라고 보았으며, 카라친이 보속투 한과 연합하여 립단 한 군에게 승리하였다고 한 것은 後金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고 사실은 립단 한의 승리로 끝났다고 보았다. 和田清, 「土默特趙城の戰に就いて」, 『東亞史研究 (蒙古篇)』, 東洋文庫, 1959, 889-904쪽.

몽골의 문제가 후금의 운명에 매우 중요하며 몽골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타이지는 몽골과의 새로운 연맹 관계 형성에 대해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몽골 각부의 연맹 제의를 받자 홍타이지는 서신 왕래를 통해 여러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상황을 관망하였다. 1627년 2월 홍타이지가 차하르 나이만의 홍바투루에게 보낸 글에서는 ‘정말 修好하겠다면 아오한의 두령·서천 조릭투·홍 바투루가 상의하여 사자를 보내면 다시 협의하겠다’고 하여 아오한과 나이만이 모두 연맹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홍타이지는 칼카가 背盟하고 후금을 침탈하였기 때문에 이를 징벌하기 위해 공격했던 일과 차하르 립단 한이 칼카를 병합하고 버일러들의 지위를 박탈한 것 등을 거론하며 후금이 몽골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협과 몽골 내부의 반립단 분위기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서 당장의 연맹 체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³¹⁾ 이는 몽고 각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하기보다 몽골 내부에서 반립단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유리한 조건에서 연맹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

이어 1627년 5월말에도 홍타이지는 차하르의 지능 후왕 타이지, 나이만의 홍 바투루, 아오한의 두령, 서천 조릭투 4 버일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말 講和하겠다면 립단 한의 사자를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또 만일 講和하더라도 後金이 코르친과 反립단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코르친도 講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통보하는 등 실현된다면 후금에게는 매우 유리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은 요구를 강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³²⁾

홍타이지는 아마도 몽골과의 반립단 연맹 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이는 연맹 체결을 논의하던 중 몽골 내부의 상황 변화에 의해 아오한과 나이만의 버일러와 國人 모두가 투항하겠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을 때 그가 보인 반응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당시 홍타이지는 明의 錦州城에 出征했다가 돌아올 때였는데 瀋陽을 留守하고 있던 버일러들이 차하르의 아오한과 나이만의 버일러·國人이 모두 叛하여 온다고 보고하였다. 홍타이지는 이를 믿지 못하여 아오한과 나이만에서 온 사자를 앞세워 투항하는 것이 사실인

31) 『滿文老檔』太宗 天聰 1, 天聰 元年 2月 2日, 11-13쪽.

32) 『滿文老檔』太宗 天聰 5, 天聰 元年 2月 2日, 65쪽.

지를 확인하고 오도록 보냈다. 이들의 투항이 사실로 확인된 후에도 홍타이지는 이들 몽골 투항 세력을 접수하는데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그간의 상황으로 보아 아오한과 나이만의 버일러들은 립단 한의 병합 시도가 강화되자 후금과의 연맹을 통해 이에 대항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홍타이지가 이들의 연맹 제의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여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립단 한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해 후금으로 투항해 온 것이었다.

홍타이지가 나이만과 아오한의 講和 요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들이 투항해 온다는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이를 확인시키고 또 많은 병력을 이끌고 나가 받아들이는 등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이들의 투항이 립단 한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明軍도 개입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후금으로 투항하려는 나이만과 아오한의 버일러들이 미리 사자를 파견하여 투항 경위를 설명하고, 명조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여 홍타이지의 의심을 풀려고 노력하였던 것도 홍타이지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³³⁾

나이만과 아오한에 이어 립단의 공격을 받았던 카라친의 반릭단 연합 제의에 대해서도 홍타이지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몽골의 내부 상황을 관망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628년 2월 카라친의 버일러·타부낭들이 홍타이지에게 편지를 보내 몽골의 반릭단 연합 세력이 립단 한을 공격할 때 후금도 참전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홍타이지는 이러한 제의에 대해 즉시 답하지 않고 그 대신 몽골의 이러한 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차하르 소속의 주변 세력에 대한 정벌을 단행하였다. 후금이 카라친에 보냈던 사자를 차하르의 돌로트圖이 두 번 가로막고 죽였다고 차하르의 알라초트圖을 정벌하여 울지 1만 1천 200을 얻고 몽골인과 漢人 1400명을 編戶하였다. 정벌 이후에도 카라친에게 사자를 보내 '너희들이 보낸 글에 차하르 한의 無道와 講和의 일에 대해 써 있다. 지금도 강화하겠다면 너희들 두 타부낭이 우두머리 되어 울허이의 버일러들이 모두 사자를 보내라. 그 사자들이 온 후 협의하자'고 하여 카라친의 모든 버일러들이 후금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립단 한 정벌을

33) 『滿文老檔』太宗 天聰 6, 天聰 元年 6月, 84-86쪽.

위한 연합 출병 제의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³⁴⁾

홍타이지가 이렇게 몽골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졌던 데에는 당시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홍타이지는 당시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후금 한의 지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취약하였다. 또한 후금의 한인지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명조와의 전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요동의 경제는 대외적으로 고립되어 식량과 생활물자의 궁핍이 심각하였다.

홍타이지는 즉위 후 이러한 후금체제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요동을 固守하는 것이 당면의 목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립단 정벌에 직접 뛰어 드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위험한 모험이었다. 우선 립단 공격에 전념하게 되면 명의 반격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립단을 자극하여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명과 립단의 협공을 받게 되어 요동 고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대외 전략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도 몽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음의 두 사례는 당시 몽골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1627년 12월 차하르에서 투항해온 앙쿤 두령을 위한 환영잔치가 열렸을 때 아바타이 타이지는 홍타이지에게 ‘나는 이 잔치에 나가지 않겠다. 나는 가죽옷이 없다. 한이 주었던 옷은 잘라서 나의 두 아들 옷을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고 실은 자신을 하급의 타이지와 同列에 앉히고, 몽골 명간 버일러, 박 버일러 등을 上席에 앉히면서 자신을 下席에 앉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누르하치는 遼東 진출 과정에서 계속 투항해 온 몽골 버일러들에 대해 優待政策을 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 만주 버일러들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누르하치의 통치 시기에는 불만을 표출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홍타이지가 누르하치의 몽골 정책을 계승하여 몽골 버일러들에 대해 계속 우대하자 드디어 만주 버일러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아바타이 타이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지만³⁵⁾ 투항 몽골민의 편입이

34) 『滿文老檔』太宗 天聰 9, 天聰 2年 2月, 121-125쪽.

35) 『滿文老檔』太宗 天聰 8, 天聰 元年 12月 8日, 109쪽. 아바타이 타이지(Abatai Taiji, 阿巴泰, 1589-1646)는 누르하치의 제7자.

후금의 정치체제 재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홍타이지의 汗權 강화와도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³⁶⁾

또한 홍타이지가 朝鮮과의 교섭 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몽골 문제가 후금의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홍타이지는 1627년 조선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호시 건설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 ‘금년에 우리나라의 곡식은 우리들만이 먹기에는 충분하지만, 몽골의 한이 악하다고 몽골의 버일러들이 國人과 함께 끊임없이 叛하여 오므로’ 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⁷⁾ 이는 당시 대외경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몽골을 이용해야 하고 몽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계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홍타이지의 난처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반릭단 만몽연맹의 체결

홍타이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반릭단 만몽연맹의 체결이 지지부진한 사이 몽골 내부에서는 립단의 통일 전쟁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패배한 반릭단 세력 중 일부는 후금으로 투항하는 선택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반릭단 만몽연맹 체결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홍타이지는 립단과 직접적인 충돌은 회피하면서 몽골 연맹을 이용하여 대명 관계를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서신 왕래를 통하여 연맹 체결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아오한과 나이만은 1628년 6월 버일러와 國人 모두가 후금에 투항하여 왔다. 이들의 사자는 ‘우리 차하르 한은 형제를 멸시하고 도의를 꺾기 때문에 수려 한을 찾아 왔다. 우리를 어디에 거처하라고 하는 것은 한의 뜻이다’고 말하여 투항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홍타이지는 ‘차하르한이 형제를 蔑視하고 道義를 저버린다고 나를 思慕하여 왔다면 어찌 토지를 제한하겠는가?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살라’고 하여

36) 홍타이지는 만주의 버일러들에게 개별적으로 몽고의 버일러들과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홍타이지가 3대 버일러 이하 팔기에 소속된 버일러들에게 몽고 버일러들이 파견한 자에게 사적으로 무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나(『東華錄』, 天命 11年 12月), 아지거 버일러가 홍타이지의 허락 없이 몽고 카라친의 여자와 혼인하였다가 罰銀을 부과받았던 사례 등은 몽고 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홍타이지가 몽고와의 관계를 장악하여 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37) 『滿文老檔』太宗 天聰 8, 天聰 元年 12月 9日, 111-112쪽.

이들의 거주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며 투항을 받아들였다. 이어 홍타이지는 1천 5백의 병력을 이끌고 이들을 받아들여러 나가 먼저 도착한 아오한의 두령·서천 조릭투, 나이만의 홍 바투루 등 3 버일러의 사자를 만났다. 이들은 '후미의 사람들을 기다리면 (후금의) 한과 암반들이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게 하면 안 좋다고 아오한의 두령, 나이만의 홍 바투루 2 버일러가 먼저 온다. 서천 조릭투는 小 버일러들을 이끌고 後尾를 데리고 온다'고 투항민의 사정을 상세히 전하였다.³⁸⁾ 홍타이지는 遼河를 건너가 숙박하며 이들을 맞이하고 7월 5일 投降 儀式을 치렀다.

투항식에서 홍타이지와 몽골 버일러들이 보여준 모습은 위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함께 당시 후금과 몽골의 연맹이 정치적으로 어떤 성격의 관계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있을 것이다. 몽골 버일러들이 '우리는 차하르 한이 不道하여 天聰 한에게 내귀했다. 한에게서 福을 받겠다고 叩頭한다'고 말하자 홍타이지가 '차하르 한이 不道하여 멀리서 나에게 來歸하느라 고생한 버일러들을 어찌 고두하게 하겠는가? 대등하게 껴안자'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몽골 버일러들은 '우리의 本據地라면 껴안겠지만 한에게 來歸해서 한의 民이 되어서는 한에게 고두하지 않으면 이치에 어긋난다. 한에게 고두하고 3 암바 버일러에게도 고두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후금의 버일러들은 '먼 곳에서 고생하며 온 버일러들을 어찌 우리가 고두하게 하겠는가? 한에게 고두한 후에 우리는 長幼의 순으로 인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몽골 버일러들이 한에게 고두할 때 한·버일러·암반들은 모두 일어섰다. 몽골의 버일러들이 고두할 때 한은 껴안아 인사했다. 이후 3암바 버일러, 버일러들과 來歸한 몽골 버일러들은 나이에 따라 껴안아 인사하고 잔치를 열었다. 그때 홍타이지의 우측에 홍 바투루, 左側에 두령·서천 조릭투를 앉히고, 하급의 타이지들을 양측에 앉혔다.³⁹⁾

투항한 버일러들에게 원하는 곳에 거주하도록 하고, 투항식에서 몽골 버일러들에게 동등하게 인사하도록 한 것 등을 볼 때 비록 몽골 버일러들이 투항하였지만 홍타이지는 이들을 투항자로 대하지 않고 대등한 연맹자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타이지는 투항 의식이 끝난 후 다음 날 곧바로 몽골의 버일러들을 이르겐(irgen)⁴⁰⁾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대신 이들

38) 『滿文老檔』太宗 天聰 6, 天聰 元年 6月, 84-86쪽.

39) 『滿文老檔』太宗 天聰 7, 天聰 元年 7月, 89-91쪽.

에게 차하르의 꺾에 빠져 반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려 한은 하늘에 서약한다. 차하르의 한이 不道하여 肉親의 兄弟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죄없는 五部の 칼카를 滅했기 때문에 아오한과 나이만의 버일러들은 차하르 한과 사이가 나빠져 수려 한에게 來歸해왔다. 수려 한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境內에 들어오게 하여 자기의 이르건과 같이 대우한다면 수려한·암바 버일러·아민 버일러·망골타이 버일러·아바타이·덜거러이·아저거·두두·요토·쇼토·사할리연·호거 등을 하늘이 나쁘다고 壽命을 단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대우해도 너희들 두렁·홍 바투루·서천 조릭투·투시여투·다이칭 다르한·상가르자이·오치르·돌바 등의 버일러가 차하르의 꺾이는 말에 빠져서 우리를 버리고 반역을 생각하면, 너희들을 하늘이 나쁘다고 하여 너희들의 수명이 짧아질 것이다. 누구라도 서약의 말을 지키고 살면 하늘이 아껴 우리의 수명을 길어질 것이고 子孫 번성하고 千歲萬년에 이르기까지 安樂하게 될 것이다.⁴¹⁾

투항한 몽골 버일러에 대한 우대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12월에는 나이만의 홍 바투루, 아오한의 두렁, 서천 조릭투를 초청하여 잔치를 열고, 몽골의 버일러들과 그 부인들에게 진주·금은·비단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지급하여 주었다. 또 아오한의 소놈 두렁 버일러에게 풍코시 공주를 혼인시키고, 서천 조릭투에게는 두랄 홍 바투루라는 명예 칭호를 주었다.⁴²⁾

홍 바투루 등 나이만과 아오한의 버일러 외에도 이들보다 조금 늦게 투항해 온 차하르의 버일러들도 있었다.⁴³⁾ 이들이 투항하게 된 사정도 마찬가지로 립단 한의 병합 시도를 피해 이동하다가 後金으로 온 것이라고 여겨진다. 홍타이지는 이들에게도 톡소(tokso)의 男, 牛, 羊, 隸民(주선)과 각종 의복과 金銀, 살 집, 田, 기구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賞으로 주는 등 후하게 대우했다.⁴⁴⁾

아오한과 나이만에 이어 립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카라친도 후금에 투항하

40) 이르건(irgen)은 民의 의미인데 그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安部健夫, 『八旗滿洲ニルの研究』, 『清代史の研究』, 創文社, 1971. ; 石橋秀雄, 『清初のイルゲン(Irgen)』, 『日本女子大紀要』 13, 1964. (石橋秀雄, 『清代史研究』, 綠蔭書房, 1989에 재수록)을 참조.

41) 『滿文老檔』太宗 天聰 7, 天聰 元年 7月, 91쪽.

42) 『滿文老檔』太宗 天聰 8, 天聰 元年 12月, 113-114쪽. 풍코시 공주는 원래 하타국의 우르구다이 버일러에게 출가했다가 우르구다이가 죽은 후 과부로 있었다.

43) 『滿文老檔』太宗 天聰 7, 天聰 元年 8月, 99-100쪽 ; 太宗 天聰 8, 天聰 元年 11月 7日, 107쪽 ; 12月 1日, 108쪽.

44) 『滿文老檔』太宗 天聰 7, 天聰 元年 8月, 99-100쪽.

었다. 1628년 7월 카라친의 사자로 라마 4인과 530인이 후금에 왔다. 그리고 8월 3일 후금과 카라친은 天地에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맹약을 체결했다.

우리 만주·카라친 兩國이 마음을 합하여 지내기 위하여 하늘에 白馬, 땅에 黑牛를 잡아 서약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주가 카라친에게 惡意를 품으면 天地는 만주를 그르다고하여 災殃이 와서 壽命이 단축될 것이다. 天地에 서약한 말을 지키고 지내면 天地는 사랑하여 壽命을 길게하고 우리들 자손은 千世에 이르기까지 安樂太平하게 지낼 것이다.⁴⁵⁾

카라친과 연맹을 체결함으로써 후금은 립단 한의 차하르에 병합된 것을 제외한 요동과 만리장성 주변에 있던 몽골 각부와 연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립단 한의 만리장성 지역 몽골 통합이 끝난 후였다. 누르하치와 마찬가지로 홍타이지도 줄곧 립단 한의 요동 주변에서의 통일 시도와 장성 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켜보면서 몽골 각부의 반립단 활동을 지지하기는 하였지만 반립단 전쟁에는 직접 나서지는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때문에 1628년 봄에 카라친이 연합하여 립단 한을 공격하자는 제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몽골 내부의 분쟁에서 패배한 세력이 후금에게 투항하였을 때 우위에 서서 연맹을 체결하였다. 홍타이지는 립단 한의 통일 시도가 끝나고 반립단 세력이 후금과 연맹을 결성하고 나서야 몽골 각부를 립단 한 정벌을 명목으로 소집하기 시작했다.

III. 반립단 만몽연맹의 이용

1. 홍타이지의 맹주권 강화

몽골의 적극적인 제의에 관망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홍타이지는 만몽연맹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반립단 몽골 세력이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후금이 우위에 서서 연맹을 체결하게 되자 몽골 연맹을 이용하여 후금이 요동의 대외 경제적 고립에서 탈피하여 요동고수를 완수하고,

45) 『滿文老檔』太宗 天聰 10, 天聰 2年 7月 19日, 8月 3日, 138-140쪽.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하였다.

먼저 만몽연맹 유지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해야 했다. 만몽연맹의 목적은 반릭단 활동이지만 후금의 입장에서는 립단과의 직접 충돌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군사력을 대명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몽골 연맹 세력은 립단에게 빼앗긴 자신들의 대명관계에서의 권익을 회복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명과의 충돌은 원하지 않았다. 때문에 후금이 대명 전쟁에 몽골 영토의 전략적 위치와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몽연맹의 반릭단 활동을 표방하면서 몽골 연맹에 대한 홍타이지의 맹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홍타이지는 반릭단 활동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반명 활동에는 소극적인 몽골 세력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용하기 위해 그 가능성을 시험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홍타이지는 먼저 몽골인의 반릭단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자신의 반릭단 의지를 과시하였다. 후금에 투항한 나이만과 아오한은 곧바로 반릭단 활동에 나서 1627년 9월 나이만의 홍 바투루의 조카 오치르 타이지는 차하르에 출병하여 100 인을 죽이고 200 두의 가축을 노획하여 이를 홍타이지에게 헌상하였다. 홍타이지는 ‘차하르 한은 나쁘다고 수리 한에게 의지하여 지내겠다고 와서, 차하르 한을 토벌하여 사람을 죽이고, 울지를 얻었다’고 오치르에게 오치르 호쇼치라는 칭호를 주었다.⁴⁶⁾ 1627년 8월에는 나이만의 홍 바투루가 자루트의 카바하이 타이지와 함께 차하르 알락초트를 공격하여 갈투 타이지를 죽이고 울지 700 인을 획득하여 헌상하였다. 이때에도 홍타이지는 역시 홍 바투루에게 다르한, 카바하이 타이지에게 위이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⁴⁷⁾

나이만·아오한과 카라친이 투항하여 반릭단 연맹을 체결하고 난 다음 홍타이지는 본격적으로 반릭단 정벌을 표방하기 시작하여 1628년 9월 코르친·카라친·아오한·나이만·칼카의 버일러들에게 차하르 립단 한 정벌을 위한 소집을 명하였다. 이번 소집은 후금이 그간 몽골 각부와 연맹을 맺은 이후 처음으로 소집한 것으로 홍타이지가 몽골 연맹과의 연합 출병 가능성과 盟主로서의 권한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홍타이지는 반릭단 연맹의 몽골 버일러들에게 각자 屬下의 병력을 이끌고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사자를 보내

46) 『滿文老檔』太宗 天聰 8, 天聰 元年 9月 13日, 105쪽.

47) 『滿文老檔』太宗 天聰 13, 天聰 2年 8月, 171쪽.

고 후금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출발했고 몽골 버일러들은 며칠에 걸쳐 각각 이동 중인 후금군과 합류했다.⁴⁸⁾ 후금과 몽골의 연합군은 차하르의 시르가·시버투·영·탕투 등 네 곳을 취하고, 정예 騎兵을 선발하여 패주하는 차하르인을 추격해서 가축과 재물을 노획하고, 저항하는 자는 죽이고 저항하지 않는 자는 살려주어 戶로 편성하였다.

처음으로 이루어진 후금과 몽골 연합군의 출병은 립단 한에 대한 공격에 이르지 않는다고 차하르의 일부 지역에 대한 2일간의 공격으로 끝났다. 정벌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는 전쟁 중에 있었던 각종 罪案을 심판하고 처벌했다.⁴⁹⁾ 이러한 작전 계획은 아마도 盟主인 홍타이지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홍타이지는 이번 출병을 몽골 각부에 대한 召集과 戰鬪·歸還에 이르기까지 몽골와의 연합 작전을 수행해 보고, 만주와 몽골 연맹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훈련의 기회로 삼았던 것 같다. 그리고 연합 군사 작전 수행을 통해 맹주로서의 권위를 형성하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몽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연합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이번 출병에서 맹주인 홍타이지의 명령을 어기고 자의적인 행동을 한 코르친 투시여투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다. 다른 몽골 버일러들과 달리 투시여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코르친에게 출병을 통보하러 갔던 사자가 나중에 돌아와서, ‘코르친의 버일러들은 오지 않는다. 투시여투 한·하탄 바투루·만주시리는 자기들의 병력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병력과 합류하지 않고 따로 습격한 후에 합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고하자 홍타이지는 크게 노하여 사자를 다시 보내어 ‘투시여투 한은 반드시 합류토록 하라’는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투시여투 한은 독자적으로 차하르의 변방에 있는 몇 家를 습격한 후 후금군과 합류하지 않고 병력을 이끌고 돌아갔다. 다만 코르친 소속의 몇 버일러는 차하르를 습격한 후 획득한 울지를 가지고 홍타이지에게 와서 합류했다. 홍타이지는 이들에게 칭호를 주고 賞을 주는⁵⁰⁾ 한편 코르친의 투시여투 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궁리를 하였다.

48) 『滿文老檔』太宗 天聰 13, 天聰 2年 9月, 176-178쪽.

49) 위와 같음.

50) 『滿文老檔』太宗 天聰 13, 天聰 2年 9月, 177-178쪽.

1628년 12월 홍타이지는 투시여투 한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간에 있었던 투시여투 한의 잘못을 열거한 편지를 보냈다.⁵¹⁾ 홍타이지가 열거한 罪狀을 통해 볼 때 투시여투는 립단 한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 후금과 연맹 관계를 맺었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후금을 동등하게 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였으며, 후금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투시여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제까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후금과 코르친의 연맹관계에는 盟約遵守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코르친이 이번에 맹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홍타이지는 사자를 파견하여 항의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투시여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굴복시켰다.⁵²⁾ 다음해인 1629년 1월 초 투시여투 한은 瀋陽에 도착하여 후금과 코르친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사자를 통해 의논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몰래 명과 교역했던 것에 대해서는 낙타 10두, 마 100두로 사죄하고, 차하르 정벌에서 약속을 위반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낙타 10두, 마 100두로 사죄하겠다고 하였다. 홍타이지는 이를 받아들이고 투시여투가 돌아갈 때에는 재물을 후하게 주어 보냈다.⁵³⁾

투시여투가 홍타이지의 위협에 쉽게 굴복한 것은 우선 맹약이 파기되었을 때 만몽연맹 속에서 고립되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51) 『滿文老檔』太宗 天聰 14, 天聰 2年 12月 1日, 181-185쪽. 홍타이지가 열거한 코르친 투시여투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① 遼東 진출 이전에 코르친이 여허와 울라를 지원하여 세 번 누르하치에게 敵對視했다. 遼東 진출 이후 ② 1624년 누르하치와 연맹을 맺기로 약속해 놓고 나오지 않았다. ③ 립단 한이 코르친을 공격하였을 때 後金軍이 출병하여 구원해주고, 이후 修好하자고 했을 때 누르하치는 투시여투와 婚姻 관계를 맺고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투시여투는 아무런 禮物도 보내지 않았다. 또 누르하치가 죽었을 때 즉시 間喪을 하지 않는 忘恩의 행동을 했다. ④ 婚姻을 할 때 나쁜 말 8두를 보내었으니 투시여투는 남에게 받을 줄만 알지 남에게 줄줄은 모르는 貪慾暴虐한 자이다. ⑤ 婚姻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아 後金을 모욕하였다. ⑥ 어구라는 자를 석방하면 가축 500두의 贖을 내겠다고 하여 석방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⑦ 敵國인 차하르 출신의 妻를 正妻로 하고, 後金 출신의 妻를 庶妻로 하여 後金을 모욕하였다. ⑧ 講和할 때 어느 敵國과 講和한다면 함께 相議하여 講和하고, 討伐한다면 함께 相議하여 討伐하기로 한 것을 어기고 명에 두 번 使者를 보내어 交易하였다. ⑨ 차하르 征伐에 합류하지 않고 먼저 돌아갔다. ⑩ 아홉째 後金軍과 만나지 않으려고 혼자 出兵하고 차하르를 공격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술수를 부렸다.

52) 『滿文老檔』太宗 天聰 14, 天聰 2年 12月, 185-191쪽.

53) 『清太宗實錄』卷 5, 天聰 3年 正月 庚申.

한 코르친 내부의 정치적 분열 상태에서 투시여투가 후금의 지원을 상실하였을 때 코르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크게 작용하였다. 홍타이지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투시여투의 굴복을 받아내고 연맹 맹주로서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코르친의 버일러들이 맹약을 위반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첫번째 반릭단 연맹 소집에서 홍타이지는 맹주로서의 지위를 행사해 보고 연합 출병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맹주로서 각종 約法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몽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였다. 1628년 10월 차하르를 정벌하고 돌아오면서 홍타이지는 아오한·나이만·바린·자루트의 버일러들에게 '여러곳에서 오는 도망자를 너희들이 막고 죽이는데, 이후 도망오는 자를 버일러가 알고 죽이면 10戶의 屬民을 취한다. 버일러가 모르고 小者가 죽이면 小者를 죽이고 妻子를 울지로 한다. 第三者가 고발해 오면 고발자를 內地로 들어오게 한다'는 禁令을 내리고, 또 '너희들 나라 주위에 보초를 잘 배치하라. 어기면 牛 5두를 취한다. 나가야 할 보초가 가지 않고 어기면 牛 1두를 취한다'는 軍令을 내렸다.⁵⁴⁾ 1629년 1월 코르친 투시여투가 그간의 잘못을 사죄하고 난 이후에는 코르친·아오한·나이만·칼카·카라친 등 5部에 대해 '모두 我朝의 制度를 준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⁵⁵⁾ 그리고 3월에는 國舅 아시다르한과 니칸 등을 보내 몽골 버일러들에게 차하르와 明 征伐 시의 병력 동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상세한 규정을 반포하였다.

너희들은 모두 歸順하였으니 出兵하겠다는 期約이 있으면 각자 踰疆爭赴하고 協力同心하여 敵愾心을 함께 내보이고 期日에 늦지 말라. 우리 兵이 차하르를 征伐하게 되면 管旗事務 버일러들은 70세 이하 13세 이상은 모두 從征하라. 위반자는 罰로 馬 1백, 駝 10을 부과한다. 늦어서 3일이 지나도 약속 장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罰로 馬 10을 부과한다. 我軍이 敵境에 들어갔다가 出境할 때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罰로 馬 1백, 駝 10을 부과한다. 明國을 征伐할 때는 旗마다 大 버일러(貝勒) 1인, 타이지(台吉) 각 2인이 精兵 1백 인을 이끌고 從征하라. 위반자는 罰로 馬 1천, 駝 1백을 부과한다. 늦어서 3일이 지나도 약속 장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罰로 馬 10을 부과한다. 我軍이 敵境에 들어갔다가 出境할 때까지 이르지 못한

54) 『滿文老檔』太宗 天聰 13, 天聰 2年 10月 9日, 180쪽.

55) 『清太宗實錄』卷 5, 天聰 3年 正月 辛未.

경우에는 罰馬 1천, 駝 1백을 부과한다. 서로 약속한 장소에서 마음대로 노략질을 하는 경우에는 罰馬 1백, 駝 10을 부과한다.⁵⁶⁾

이 규정에 따르면 차하르를 정벌할 때에는 몽골의 거의 전 병력이 동원되고, 명을 정벌할 때에는 1 旗에 100명의 병력만이 동원되도록 하여 병력 동원수는 차하르를 정벌할 때 훨씬 많이 부과하였지만, 동원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명을 정벌할 때 훨씬 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은 명 정벌을 더 염두에 두고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병력 동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홍타이지는 이 규정에 따라 몽골의 병력을 자신의 의도대로 동원할 수 있는 맹주로서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다.

맹주로서의 권한 강화를 통하여 홍타이지는 차하르와 명조에 대한 정벌을 계획하고 주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후금군이 몽골 각부의 지역을 통과하여 대명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몽골 정벌을 위해 한두 번 몽골 지역에 들어갔던 것 이외에는 후금군이 자유롭게 몽골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후금군이 연맹 관계에 있는 몽골의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후금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져다 주었다. 우선 接壤하고 있는 몽골 각 지역을 후금군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후금의 변경 방어 부담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몽골 지역을 이용한 대명 공격이 가능하게 되어 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누르하치는 몽골과 반릭단 연맹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립단 한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회피해 왔고 홍타이지도 이러한 누르하치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홍타이지는 립단 한의 통일 시도로 인한 몽골 내부의 동요를 감지하고 장성 지역에 까지 반릭단 몽골 연맹을 확대하였지만 그렇다고 립단 한과 직접 충돌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후금의 요동 고립 탈피와 대외경제 확대가 절실했기 때문에 홍타이지는 몽골 버일러들과 연합 출병에 의해 연맹 체제를 강화하고 맹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 후 이를 대명 문제 해결에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반릭단 정벌은 몽골 버일러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연합 출병에 참여시키는 명분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몽골과의 연합 출병은 대명 작전 중에 발생할 수도

56) 『清太宗實錄』卷 5, 天聰 3年 3月 戊午.

있는 립단 한의 방해를 몽골 병력을 이용하여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몽골 각부의 반후금 활동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었으며 또 몽골의 군사력을 대명 작전에 이용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었다. 연합출병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맹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홍타이지는 곧바로 이를 대명 작전에 이용하였다.

2. 몽골 대명경제 병합과 확대 시도

몽골은 명조와의 관계에서 약탈, 조공, 호시무역, 무상은 수령 등의 활동을 통해 대외경제적 이익을 획득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경제권은 립단의 몽골 통합 이전에는 몽골 각부의 버일러들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립단의 통일 시도로 이들은 권리를 립단에게 빼앗겼다. 이들이 벌인 반립단 운동은 자신들의 牧民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것과 함께 립단에게 빼앗긴 대명경제권을 회복하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홍타이지는 몽골연맹을 이용하여 대명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만몽연맹이 립단으로부터 몽골 각부의 대외경제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며 나아가 대명 경제의 확대를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회복한 대외경제권과 확대된 대외경제 이익을 몽골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만몽연맹의 맹주권을 이용하여 자신이 장악하였다.

만몽연합 출병의 가능성을 시험 확인한 홍타이지는 곧이어 자신의 의도대로 명을 공격하는 군사작전을 전개해 나갔다. 1629년 9월말 홍타이지는 몽골의 출병을 지시하였다. 이번 출병은 연맹을 결성하고 나서 후금과 몽골이 두 번째로 연합하여 출정하는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이번 출정에서 몽골 카라친부 布爾噶都 타이지를 嚮導로 이용하였다. 그는 이전에 장성 지역에서 명으로부터 무상은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잘 알고 있었다. 布爾噶都是 몽골 소집 명령이 발포되기 직전에 瀋陽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그를 이번 작전의 향도로 삼아 명 내지를 공격하려는 계획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다.⁵⁷⁾

몽골의 병력이 후금군과 합류하는 과정에서 홍타이지는 여전히 맹주로서의

57) 1629년 6월에 몽고 카라친부 布爾噶都 戴青, 台吉 卓爾畢, 투메트部 台吉 阿玉石, 俄木布, 博羅 등이 使者 45인을 보내 來朝하였다. (『清太宗實錄』, 卷 5, 天聰 3年 6月 丁卯) 布爾噶都是 9월말에 後金에 來朝하였다. (『清太宗實錄』, 卷 5, 天聰 3年 9月 癸卯)

권한을 행사하여 이들의 출병 준비를 점검하고 준비가 미비한 것에 대해 질책하였다. 몽골 버일러들에게 '내가 일찌기 너희들의 말을 잘 살피우라, 타지마라, 정벌에 쓴다고 말했었다. 너희들은 명을 어기고 수렴하여 말을 마르게 하고 소수의 병사만이 온 것은 무엇하는 것인가'라고 책망하고 가져온 현상품을 받지 않았다. 또 '서터르 서령은 오는 게 늦었다. 몽골의 버일러들은 모여 그의 죄를 논하라'고 하여 얼마 전에 정한 출병 규정에 따라 처벌을 의논하게 하였다. 지난번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코르친의 투시여투 한을 비롯한 23인의 버일러들도 이번 출병에서는 명령을 어기지 않고 6旗의 병력을 이끌고 합류했다.⁵⁸⁾

홍타이지는 몽골 병력이 모두 도착하고 난 이후 후금의 버일러·암반 및 몽골 버일러들에게 '明國은 누차 맹세를 어겼고, 몽골 차하르국은 殘虐不道하니 모두 다 征討해야 한다. 지금 大兵이 이미 모였으니 어느 쪽으로 먼저 가야 하는지를 너희들은 함께 의논하라'고 말하였다. 버일러와 암반들은 차하르는 너무 멀기 때문에 人馬가 피로하니 退兵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大軍이 이미 출병하여 千里를 왔으니 명을 정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등 의견이 나뉘었다. 홍타이지는 명을 정벌하는 의견이 옳다고 하고 大軍을 이끌고 명의 변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후금군이 카라친의 青城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머물 때 암반 버일러 다이산과 망골타이가 명의 변경을 들어가 노획하지 못하면 식량이 모자라고 馬가 피로해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들어간다 해도 명군이 포위하여 공격하면 衆寡不敵이며, 또 邊口에 들어간 이후 명군이 퇴로를 차단하면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명 정벌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젊은 만주 버일러들의 지지를 받아 명 정벌을 계속 추진했다.⁵⁹⁾

이미 출병한 이후에 명을 정벌할 것인지 차하르를 정벌할 것인지를 의논하게 하여 명 정벌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일부 버일러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홍타이지는 처음에 이번 출병이 명을 정벌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혼자 명 內地 진입 시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홍타이지는 명 정벌을 의도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만주 버일러와 몽

58) 『滿文老檔』太宗 天聰 17, 天聰 3年 10月, 230-235쪽

59) 『清太宗實錄』, 卷 5, 天聰 3年 10月 丙寅, 辛未.

골 버일러들에게는 차하르를 정벌한다고 하여 출병시킨 후 도중에서 버일러들에게 의논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여 명 정벌을 공식적인 의견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장성 지역을 통한 명 정벌이기 때문에 출발 전에 이를 밝히면 만주의 버일러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고, 몽골의 버일러들도 명 정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홍타이지가 만주 한으로서 만주 버일러들에 대해 확고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몽골 버일러들에 대해서도 맹주로서의 권위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홍타이지가 군사 작전 수행 중에 일부 만주 버일러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자신의 작전 계획을 관철시키고, 몽골에 대해서도 그 계획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정벌을 만주 한으로서의 권력과 몽골 연맹에 대한 맹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금과 몽골의 군대는 左右翼으로 나뉘어 명 내지로 진입하였다. 후금군과 함께 좌우익으로 편성되어 내지 진입에 참가한 것은 코르친·차하르·칼카 버일러들의 병력과 만주 八旗에 소속된 몽골 병력이었다. 카라친 지역을 통과하여 명 내지 진입을 시도하는 것인데도 카라친과 투메트의 병력은 참가하지 않았다. 홍타이지가 명 정벌을 선언하였던 것은 카라친 지역에 들어서기 직전으로 이때 병력이 이미 다 모였다고 말하였으며, 카라친 지역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카라친의 버일러들이 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 정벌에 카라친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카라친의 布爾噶都督 嚮導 역할을 하고 있고, 카라친 지역을 통과하여 대명 작전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홍타이지는 사전에 카라친 지역을 통과하는 대가로 카라친은 출병하지 않아도 된다는 협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후금과 몽골의 연합군이 명 내지에 진입하여 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카라친은 장성 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후금군과는 별도로 명 변경의 漢人 지역을 약탈하였다. 립단 한에게 대명 무역권을 상실했던 카라친의 버일러들이 기회가 생기는 대로 명 내지를 약탈하여 물자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카라친과 인접한 장성 지역에 대한 약탈의 권리는 아직도 카라친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홍타이지는 카라친이 후금군이

진출한 지역에서 漢人을 약탈하는 것에 대해 수 차례 경고하여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後金軍이 龍井關으로 진입한 이후 곧바로 카라친과 투메트에게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 토벌하였다면 우리에게 저항하는 漢人을 죽이고 뺏으러 가라. 우리에게 항복한 漢人을 죽이고 의복을 벗기고 뺏으러 간다면 우리에게 敵과 같다. 그러한 자를 잡으면 죽인다'는 禁令을 카라친에게 전달하였다.⁶⁰⁾ 1630년 2월에는 後金이 점령하여 漢人 지배를 시도했던 遷安 지역에 카라친이 와서 침탈하자 카라친의 타이지·타부낭에게 편지를 보내 '(後金) 한의 命을 따라서 온 것이라면 한은 종카에 머물고 있으니 한을 만나러 오라. 무엇인가 한의 명령이 있으면 바로 그에 따라 행동하라. 한의 명이 없이 온 것이면 속히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쪽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여 농사일을 그르치고 우리 자신도 또한 너희들을 이곳에 머물게 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 너희들을 경계 밖으로 쫓을 것이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면 사람을 보내어 이곳에 와서 만나고 돌아가라. 우리말을 의심하지 말고 속히 행하라'고 하였다.⁶¹⁾ 이어 카라친의 조릭투·다이 다르한·시란투·삼바 등에게 편지를 보내 '이후 너희들의 國人을 엄중히 관할하라. 나에게 투항하여 剃髮한 民을 범하지 마라. 투항자를 죽이면 죽인 자를 죽이겠다. 약탈하면 약탈의 보상을 받겠다. 1인의 漢人은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투항민을 죽인다는지 약탈하면 아직 투항하지 않은 다른 곳의 民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경고했다.⁶²⁾

홍타이지는 점령지역의 漢人 지배를 시도하면서 카라친의 漢人 약탈을 저지하였지만 명군의 반격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카라친의 병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1630년 1월 카라친의 삼바 타부낭에게 大安口에 주둔하도록 하기도 하였고⁶³⁾ 永平에서 노획한 재물의 반을 주기로 하고 카라친에 예속되어 있던 우랑하 수부디(蘇布地)의 36家を 징발하여 桃林口를 공격하게 하기도 하였다.⁶⁴⁾ 또

60) 『滿文老檔』太宗 天聰 18, 天聰 3年 10月 29日, 241쪽

61) 『滿文老檔』太宗 天聰 22, 天聰 4年 2月 1日, 300쪽.

62) 『滿文老檔』太宗 天聰 24, 天聰 4年 2月 14日 323-324쪽.

63) 『滿文老檔』太宗 天聰 26, 天聰 4年 3月 29日, 347쪽. 삼바 타부낭은 『滿文老檔』에는 카라친 소속으로 되어 있고 『清太宗實錄』에는 투메트 소속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清太宗實錄』卷 6, 天聰 4年 正月 壬寅.

한 홍타이지는 明朝에 和議를 권유하는 편지를 써서 수부디가 쓴 것처럼 가장 하여 명조에 전달하도록 하여 몽골을 對明 和議 요구에 이용하기도 하였다.⁶⁵⁾ 瀋陽으로 돌아온 이후인 1630년 4월에는 카라친에 사자를 보내 '國境에 連接해 거주하고 있는 몽골의 城을 明에게 탈취당하면 안된다. 술에 취하여 警戒兵을 신뢰하다가 城을 탈취당하면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明軍의 반격을 방어하는 데에도 카라친을 이용하였다.⁶⁶⁾ 이처럼 홍타이지는 카라친의 자의적인 대명 약탈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 하에서만 대명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카라친의 대외경제권을 병합하려고 하였다.

명 내지에 남아 있던 후금군은 명군의 반격을 받아 1630년 5월 후퇴하였다. 그러나 후금은 이번 명 내지 진입 전쟁을 통하여 장성 지역에서 대외 경제를 확대함으로써 군사적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후금은 요동 진출 이후 한인 지배의 불안정과 대외 관계의 고립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 누르하치를 계승한 홍타이지는 이러한 요동 경제의 불안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인 지배 정책의 변경과 對明 和議를 비롯한 대외 관계의 전환을 도모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명조와의 화의는 담보 상태에 빠져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고 요동 한인 지배의 안정과 경제 회복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홍타이지는 이번 작전에서 장성 지역을 통해 명 내지로 진입하여 北京城을 포위하기도 하였고, 遵化·永平·灤州·遷安 등지를 점령하고 이 지역의 漢人 지배를 시도하였으며, 山海關을 배후에서 공격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명조에 대해 화의의 진행을 요구하는 한편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약탈을 진행하였다. 또한 명의 후금 문제를 총괄하던 袁崇煥을 反間計를 이용하여 제거하기도 하여⁶⁷⁾ 명조의 요동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완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 경제의 확대 가능

64) 『崇禎長編』崇禎 3年 正月 乙巳.

65) 『清太宗實錄』卷 6, 天聰 4年 正月 丙午.

66) 『滿文老檔』太宗 天聰 26, 天聰 4年 4月 5日, 348쪽.

67) 1629년 後金の 明 內地 진입 시의 활동에 대해서는 李光濤, 「論崇禎二年“己巳虜變”」, 『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18本, 1948.(李光濤, 『明清檔案論文集』,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에 재수록); 孫小云, 「論袁崇煥與己巳之變」, 『安徽史學』1984年 第6期.; 孫文良의, 『明清戰爭史略』, 遼寧人民出版社, 1986, 273-293쪽.; 謝景芳, 「論“己巳之變”與明清交替」, 『求是學刊』1988年 第1期. 등을 참조.

성을 기반으로 홍타이지는 만주 八旗體制의 개혁과 漢人 官僚制의 도입, 한의 권력 강화 등 遼東 漢人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의 정치적 권력 강화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맺 음 말

後金の 遼東 진출로 인한 몽골의 對明 경제 변화와 정치체제 동요는 만리장성 지역의 몽골 각부에게로 확산되었다. 립단 한은 遼東 지역에서 코르친과 칼카에 대한 병합을 시도한 후 西遷하여 정치조직과 대명경제권의 통합 시도를 확대하였다. 이 지역에서 독립적인 정치조직과 대명경제권을 보유하고 있던 일부 반릭단 몽골 세력은 병합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後金과의 반릭단 연맹을 제의하였다.

後金은 遼東 진출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明과 대치 상태에서 遼東 漢人 지배는 불안정하여 군사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에 빠지게 되었고, 누르하치 사후에는 정치적 분열의 조짐마저 나타나 후금체제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막 즉위한 홍타이지는 몽골의 연맹 제의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경제의 확대와 정치체제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던 홍타이지에게 반릭단 몽골 세력의 자진 투항과 만몽연맹의 확대는 이러한 과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홍타이지는 反릭단 연맹을 對明 경제의 확대에 이용하였다. 립단 정벌을 名分으로 몽골 연맹의 병력을 출동시키고 연합 작전을 전개하면서 맹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몽골이 소유하고 있던 대명 경제권을 병합하고 이를 이용해 대외 경제 확대를 시도했다.

홍타이지 즉위 초기의 만몽연맹 확대와 이를 이용한 대외경제 확대 가능성의 확보는 이후 만주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홍타이지는 명 내지 약탈과 화의 요구 등 지속적인 대명 압박을 통하여 경제적 불안정과 군사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대외경제 확대의 성공은 정치체제 개혁과 군주권 강화의 기반이 되었다. 만몽연맹의 확대는 동시에 몽골의 붕괴에도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반릭단 연맹의 립단 정벌과 대명 공세로 립단은

몽골 통일과 대명 경제 확대 시도가 좌절되었다. 한편 만몽연맹은 립단의 차하르부 붕괴 이후에는 反明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고 독립적인 대외경제권을 상실한 몽골 각부는 홍타이지에 대한 정치적 예측성이 더욱 강해져 몽골 팔기와 외번몽골로 재편되었다.

만주의 발달 과정에서 누르하치가 후금체제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성공에 이어 요동 한인 지배라는 대외경제 상의 성공을 거두었다면 홍타이지는 만리장성 지역을 통한 대명 경제 확대라는 대외경제 상의 성공과 이에 뒤이은 大清體制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 홍타이지가 대명경제 확대와 滿蒙漢의 통합체제 수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몽골과의 연맹 확대와 이용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